

다양한 곡물 처리, MEGA RPC로

〈광역통합형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

식품연서 개발... 미세먼지 저감 가능토록 설계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은 다양한 곡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군단위의 광역통합형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MEGA RPC)을 개발하고 지난 15일 이를 공개했다.

식품(연) 김훈 박사팀에 따르면,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의 공정분석을 통해 광역통합형 미곡종합처리장(이하 Mega RPC)의 12개 세부공정과 27개의 성능기준을 개발하고 전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공정도, 세부내역, 소요면적 및 소요비용 등의 설계도

서와 건축 및 가공시설, 부대시설, 안전설비, 위생관리 및 기타 등으로 구성된 시설기준을 개발했다.

이번 개발로 시간당 15~20톤 수준의 미곡처리가 가능하며, 동시에 2,855~3,040kW의 소요동력으로 기존 모델 대비 약 15%의 에너지 절감이 기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WTO체제에서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비용 절감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1992



MEGA RPC 친환경집진시스템

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현재 총 328개소가 보급됐다.

이번에 개발된 친환경 미곡종합처리장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미세

먼지 대응 방안 또한 Mega RPC를 통해 저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역크랭크축방식을 적용해, 별도 설치에 비해 에너지, 설치비용, 공간 등의 절감이 가능하다.

김경탁 한국식품연구원 전라기술연구본부장은 "대량생산시스템에 의해 다양한 곡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군단위의 광역통합형 미곡종합처리장(MEGA RPC) 모델 개발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에너지, 설치비용 절감과 높은 자동율로 경영효율화는 물론, 국내산 쌀의 고 품질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협력

농진청-POSTECH, 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POSTECH(총장 김무환)은 지난 15일 포항공대에서 농업과 첨단 융·복합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POSTECH 생명공학연구센터는 분자·세포수준에서 난치병 예방, 진단 및 치료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분자 의학, 바이오매스·바이오소재를 개발하는 식물생명공학, 나노기술 이용 생물학·약학·의료진단 및 치료연구를 위한 나노바이오 분야의 기초 연구 및 응용연구를 하고 있는 곳으로 미래 융·복합산업의 핵심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과 첨단 융·복합분야의 공동 연구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식물 기반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소재 개발, 실용화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함께 활용해 식물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에 기여할 예정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과 POSTECH 김무환 총장은 지난 15일 포항공대에서 농업과 첨단 융·복합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다. 이와 함께 학·연 협동연구 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해 식물 생명공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를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경미 과장은 "그동안 바이오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

는 POSTECH과 협업을 계기로 식물 기반 바이오소재 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관련 융·복합 연구성과가 탁월한 기관과 협력을 점차 확대하여, 미래 농업기술의 가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건협 전북도회

대표자 경영연수 실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주시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에서 회원 대표이사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표자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대표자 경영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경영연수에서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건설업 전문 회계사를 강사로 초빙해 건설산업 변화전망에 따른 대응전략 및 건설업 회계와 절세 방안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어 연수에 참여한 대표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윤방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최근 건설산업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어려움에 있지만 급변 CEO 경영연수를 통해 변화와 도약의 실마리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윤방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산업"이라며 "최근 건설산업 저성장의 흐름 속에서 어려움에 있지만 급변 CEO 경영연수를 통해 변화와 도약의 실마리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롯데백 전주점, 김장김치 기탁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지난 14일 김장김치 단고기 행사를 갖고 서신동주민센터(동장 정진희)에 김장김치 300kg을 기탁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직원들이 정장차림으로 김장김치와 백미 10kg을 접장 및 직원들이 대상 가정을 찾아 직접 전달도 하고 추운겨울 건강 유의하시라는 당부도 드리면서 진행되었고 이웃 사랑의 마음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는 듯 따뜻한 동행으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김윤상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지난 14일 김장김치 단고기 행사를 갖고 서신동주민센터(동장 정진희)에 김장김치 300kg을 기탁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직원들이 정장차림으로 김장김치와 백미 10kg을 접장 및 직원들이 대상 가정을 찾아 직접 전달도 하고 추운겨울 건강 유의하시라는 당부도 드리면서 진행되었고 이웃 사랑의 마음에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는 듯 따뜻한 동행으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김윤상 기자



안주 은혜의 동산서 한돈 나눔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홍종기)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부진을 극복하고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섰다.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는 최근 안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장애우 거주시설인 은혜의 동산에 삼겹살 25kg과 생황용품 등 총 7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등 한돈 소비촉진 사랑나눔행사를 기쁘다고 밝혔다.

홍종기 지부장은 "이번 한돈 사랑나눔행사를 통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희망을 주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는 소중한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김장근 본부장, 전북 한우협동조합 현장 방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김장근 본부장이 도내 우수기업의 경영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소통행보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5일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한우육가공 및 소매업체인 전북한우협동조합(조합장 김창희)을 방문해 우수한 기술력을 시찰하고 경영여로 사항과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한우협동조합은 농촌진흥청 축

산과학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탄생한 총체보리한우 브랜드 경영체로 전라북도 전 지역 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품목 협동조합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탄생시킨 총체보리 섬유질 배합사료를 먹고 자란 최고급 한우를 전문으로 취급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다.

한편, 전북본부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성장은 곧 전라북도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된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경영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소상공인 희망센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이 운영하는 전라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이하 희망센터) 입주업체 및 임직원은 밤상공동체 전주연탄은행과 함께 지난 15일 전주시 전미동 연봉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희망센터는 초기 창업자가 성공의 꿈을 키우고 성장 발전하는 곳으로, 지난 2011년 7월 개소한 이래 전국 유일무이한 소상공인대상 창업보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밤상공동체 전주연탄은행과 매년 연탄의 온기에 의지해 도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경진원, 희망센터 입주업체 및 임직원 5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연탄 약 2,000여 장을 기부했다. 전달된 연탄은 경진원과 희망센터 입주업체 (주)엑셀(대표 양길용)의 후원을 통해 마련됐다.

한편, 희망센터 관계자는 "우리지역의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이제 수능 끝! 여행 시작이다!'

이스타항공, 수험생 대상 국내선 최대 30% 특별 할인 내년 1월 31일까지 군산·부산 등 출발 제주 노선 해당

이스타항공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국내선 운임을 할인 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생 할인이 적용 되는 기간은 지난 15일 오후 12시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일부 성수기 기간은 제외, 동일 기간 탑승 가능한 국내 노선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노선은 김포, 청주, 군산, 부산에서 출발하는 4개 제주 노선이며 특가 운임을 제외한 정상운임에는 30% 할인, 할인운임에서는 추가 20%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위해서는 웹 사이트에 로그인 후 탑승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수험생 및 수험생 동반자 할인을 선택하고 프로모션 코드 EXAM10 입력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이후 공항 카운터에서 대학입시지원서(수시포함), 원서접수증, 수험표 중 한 가지를 제시하면 되고 친구와 가족 등 동반 1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정상운임뿐만 아니라 할인 운임에도 혜택이 추가 적용되도록 하고, 가족과 상관없이 동행자 1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준비했다"며 "이스타항공을 이용하는 수험생들이 놓치지 않고 많이 혜택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B인문학콘서트 30일 '광파르'

전은, 도내 청소년·도민 대상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오는 30일, 전북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도내 청소년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4회 2019 JB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이자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철학자인 도올 김용옥 선생의 '통일한국을 향한 청춘의 포효'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인문학 강좌와 고등래퍼 시즌 3 우승자인 영지 래퍼와 함께 영케이(김민규) 래퍼의 힐링 콘서트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는 최근 신간 '유시민과 도올 통일, 청춘을 말하다'를 바탕으로 이 땅의 청년들에게 민족 통일에 대해 세계사의 시작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전해주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며, 2부 공연은 최근 콜라보 음반을 발매한 영지와 영케이(김민규) 래퍼가 화합에 지친 청소년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 관람은 전북도민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접수는 25일까지 전북은행 또는 사회공헌부 홈페이지(www.jb.co.kr) 또는 각 영업점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단체접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250-7495로 문의하면 된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문학 콘서트의 이번 특강을 통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인문학 콘서트에 참여하는 청소년 및 도민을 위해 도올 김용옥 선생의 신간 '유시민과 도올 통일, 청춘을 말하다'와 소정의 기념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부안 신활력플러스 공유경제 접목

전북도-경진원-부안군, 지역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세미나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공동주관으로 부안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2020년부터 추진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 공모 계획 자문을 위한 자리로 부안군 산업건설국장,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 경진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부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4대 추진전략으로 에코마켓 공유비즈니스 플랫폼 구축과 에코푸드 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구상하고 있다.

부안군은 올해 처음 실시한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청춘두

레 꼬마농부팜'의 농기계공유사업 선정을 계기로 농촌형 공유경제를 접목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주대 한동승 교수는 네덜란드 케어팜을 소개하며 '사회적농업을 접목한 치유 케어팜'을 제안했고, 오지세무대 이재민 교수는 영국의 토트네스 마을 사례를 들어 '지역회화와 연동한 공유경제 사업'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경진원 관계자는 "부안군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도시 중심의 공유경제 사례를 넘어 농촌형 공유경제 확산 가능한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부안군과 공동주관으로 부안군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어촌공, 건설현장 품질·안전관리 교육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심덕섭)는 지난 14일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 직원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사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어촌공사의 건설재해 현황과 실제 전북 관내의 재해사례를 예로 들며 단독작업, 주말작업, 기상이변 등 현장 취약 분야에서의 작업근로자 안전확보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또한 공사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실무매뉴얼 등을 공유하며 건설현장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했다. 아울러, 시공

회사 현장대리인과 토론 및 건의사항 시간을 통해서 교육내용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협력관계로서 상생을 다짐했다.

교육에 참가한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은 "어떠한 상황보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제1의 기준이므로 현장에서 재해 및 사망민원율을 공공기관 중 최하위수준으로 만들자고 당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